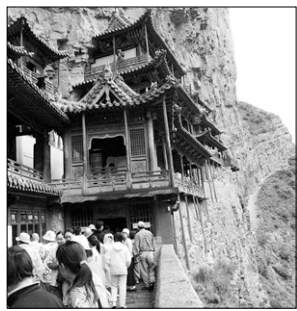




중 오대산 '세계의 성지'

세계문화유산 복합부문에 등재

중국의 4대 불교 명산중 하나인 산시(山西)성 오대산(五臺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6월 22일 스페인 세비아에서 열린 WHC 제33차 회의에서 복합유산 부문에 산시 오대산을 등재했다.



중국 오대산 현공사.

불교 문수보살 신앙의 근거지로 알려진 오대산은 △사천성의 아미산(峨眉山, 보현보살의 도량) △절강성의 보타산(普陀山, 관음보살의 도량) △안휘성의 구화산(九華山, 지장보살의 도량)과 더불어 꼽히는 명산이다.

산시성의 성도 타이위안에서 230km 떨어진 신저우시에 있는 오대산에는 5개의 선방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크고 규모와 역사가 오래된 것은 현통사다. 이외 유명한 불교문화유산은 남산사, 보화사 불상, 용천사의 한백옥 패방, 육각연화탑 등이 있어 오대산을 가면 많은 볼거리를 구경할 수 있다. 또한 오대산에는 지난 1~20세기 초 6개 왕조를 거치면서 무수한 불교 사찰

이 세워져 중국 불교의 3대 명산 중 하나로 숭상되고 있다.

오대산을 문화유산에 등재시킬 수 있었던 것은 유네스코에 파견된 중국 대표단의 힘이 컸다. 연합뉴스는 "국가문화유산총국(董明康) 부국장을 포함한 60명 인원에 이르는 대규모 인원이 현지에서 파견돼 대대적인 등재 로비활동을 펼친 결과 우타이산(오대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중국은 문화유산 27곳, 자연유산 7곳, 문화·자연 복합유산 4곳 등 38개의 세계유산에 갖게 됐다.

이나라 기자

중국불교 영어로 알리자

불교영어훈련반 1기생 배출

중국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개설한 '불교영어훈련반' 1기생 스님들이 6월 27일 8개월만에 수료식을 가졌다.

중국신문사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외국어대학에 개설된 훈련반 1기생은 중국 전국 사찰에서 온 22명의 학인 스님들로 구성됐다. 이날 수료식에서 이들은 훈련성과를 영어로 발표하는 등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훈련반은 2010년 상하이에서 개막하는 엑스포에 스님들을 참여시켜 중국 불교를 영어로 알리려는 목적으로 개설됐다.

수련생들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의 영어 훈련 이외에 불교 전문 영어 용어를 배우고 '불교와 과학', '불교와 인생', '일본불교철학' 등의 강좌를 들었다.

불교 전문 영어 용어는 홍콩 대학 불교연구센터와 국제불광(佛光)대학 관계자들이 가르쳤다. 홍콩대 불교연구센터 총장인 정인(淨因) 법사는 "불교영어훈련반"은 중국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설 인재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라고 치사했다.

이나라 기자

'품위있는 죽음 - 존엄사' 찬성 142명 · 반대 8명

서울은평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모의재판 열어 존엄사 '심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 1004호 사건에 대해 생명연장장치 제거에 찬성하는 배심원 15명 반대 5명의 의견이 제출됐으므로,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조해 생명연장장치 제거를 인정합니다. 망당방!"

재판관이 20명의 배심원들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수렴해 의사봉을 치며 판결을 내린다.

6월 23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첫 존엄사를 맞이한 김모 할머니(77)가 17일째 자발호흡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재욱)이 어르신 모의재판을 열어 논쟁을 끈다.

복지관은 7월 9일 2층 강당에서 복지관 어르신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르신 모의재판 '품위있는 죽음-존엄사'를 열었다.

2주의 준비기간을 걸쳐 담당교육자와 대본을 만들어 연습한 어르신들의 재판과정은 여색함이 없었다. 재판관정을 지켜보던 어르신들도 원고·피고측의 공방을 보며 공감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등 매우 진지한

모습이었다.

피고측 변호인은 "존엄사의 의도가 이론적으로는 훌륭하나 생명경시 풍조로 인한 현대판 고려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환자들은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죽어줘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존엄사를 반대했다.

이에 반해 원고측은 "병을 고치지 말고 방관하지는 것이 아니라 의학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환자가 편안하게 삶을 마감하는 게 당사자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변론했다.

50여 분간의 공방 끝에 방청 어르신들은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기 전 나눠 받은 ○, × 표시의 종이를 들었는데 이중 142명이 찬성(○), 8명이 반대(×)를 들었다. 어르신들 중 다수가 존엄사를 찬성했다.

실제로 모의재판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참석 어르신들 중 90.9%가 '존엄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77.2%가 존엄사에 대한 법 제정 및 사회적 합의



서울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모의재판 모습. 존엄사를 주제로 어르신들이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

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고재욱 관장은 이에 대해 "법이 한 사람의 생명을 결정지을 수는 없다. 또한 생명의 가치를 효율성으로 생각해 취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어르신들이 결국에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존엄사를 찬성하는데 이는 노인자살과 같은 사회적 문제와도 연결된다. 반드시 국가에서 적극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럴 때 일수록 종교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네 불

교계에선 아직까지 존엄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어르신들은 "자식에게 부담주기가 싫어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곧게 죽고 싶다"고 말한다. 불교계가 이런 어르신들의 말에 귀 기울여 그들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포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나라 기자 bohyung@buddhapia.com

무지개 빛 희망 전하는 합창단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한데 모여 무지개 빛 희망을 부르는 합창단이 창단됐다.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보선·김의정·김상철)는 7월 10일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12층 대회의실에서 '레인보우코리아 합창단' 창단식을 가졌다.

김의정 공동대표(조계종 중앙신도회장)는 "합창단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될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음악으로서 꿈과 용기를 심어 주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합창단은 지난 6월 1~21일 서울, 경기 지역의 합창단원 지원자 50여 명의 오디션 참가 신청을 받아 6월 23, 26일 서대문구 청소년 수련관 소극장에서 열린 합창단원 선발 오디션을 통해 30명의 합창단 정식단원을 구성했다. 이나라 기자

"발로 뛰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박한욱 복지사 '새내기 사회복지사' 수상

"열린 복지관 만들기"에 앞장서는 발로 뛰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에서 근무하는 박한욱 사회복지사가 6월 28일 제66회 '새내기 사회복지사' 상을 수상했다.

박한욱 복지사가 받은 상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민일보, 삼성전자가 공동주최하는 상으로 5년 이하 경력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이다.

"불교신자로서 불교계에서 수탁운영하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기업 및 대학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자



새내기 사회복지사 수상한 박한욱 사회복지사 (오른쪽에서 세번째).

원을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잘 연계해 상을 받게 돼 매우 뜻 깊고 영광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하던 2007년부터 함께 해온 박한욱 씨는 복지관 사회교육사업, 노인 자원봉사사업을 맡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지원사업인 노인전문자원봉사단 '낙산 다시 오르기'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박씨는 2006~2008년 2년간 종로구에 위치한 기업과 경로당을 연계한 경로당활성화사업인 '1사1社1성로당지킴이'를 만들어 경로당의 생활을 풍요롭게 했다. 특히 치매예방프로그램

'오감만족(五感滿足)'을 통해 경로당어르신들께 치매에 대한 정보와 예방법을 알려 큰 호응을 얻었다. 2008년에는 성균관대학교 자원봉사 동아리 '다소미'와 협력해 어르신을 위한 휴대전화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해 대학교 공모사업에 당선되는 등 미래 사회복지인 육성을 위한 대학생자원봉사프로그램도 진행한 바 있다. 이나라 기자

조혈모세포기증 확대 세미나 열어

이식대기자 3천명 기증 기다려

2008년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로 등록된 수는 17만 명 정도다.

조혈모세포 기증에 적합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56%가 기증에 동의했다. 골수나 제대혈, 말초혈조혈모세포 기증이라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제로 이식받은 환자는 347명에 불과하다.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가 3000여 명인 통계로 볼 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기증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민)가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혈모세포 실기증자 확대를 위한 세미나'는 7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일민 스님은 세미나에 앞서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고 기증을 실천해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호 교수(조혈모세포이식센터 소장, 한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우리나라 조혈모세포 기증 실태와 관리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한국 조혈모세포관리체계가 △조혈모세포 관리 실무 총괄 운영기관 부재 △정부지원이 골수, 말초혈 기증희망자 모집 및 검사사업에만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혈모세포관리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 △조혈모세포 관련 법령 개정 △조혈모 세포관리를 위한 실무 총괄기관 설립 △골수, 말초혈, 제대혈의 기능적 통합관리의 필요성등을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기증자·수혜자·조정기관·정부 등 각 입장에서 본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나라 기자

진시황제가 비밀시 활용하던 천비술서! 금쇄옥약시의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책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 * 귀장술 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 귀장술 12신궁의 금전재물은 보는 법
-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 부부인연인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 자녀액운 차귀탈 정단법
- * 취직시험·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 관청·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 소송·판사사의 승패 판단법
-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 도주·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世生두시법
-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현상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착해론
- * 산소·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법

심자성 래정비법 전수생모집

사주를 뽑지않고, 자신이 갖고 들어온 점책으로 쉽게 푸는 법

11명의 저자 백초스님 직강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매일 예약가능)

百超律歷學堂

입금 계좌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